

2013년도 국제공증인협회 정기총회 및 제27회 국제공증인대회 참석보고서

안 원 모

대한공증인협회 총무이사
법무법인 한덕 변호사

1. 서 언

2013. 10. 6.부터 2013. 10. 12.까지 페루 리마의 웨스틴 호텔에서 제27회 국제공증인 대회 및 2013년도 국제공증인협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국제공증인협회(U.I.N.L)는 전 세계의 공증인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공증인의 국제적 단체로서 동 협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매 3년에 1회 국제공증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공증인대회는 전 세계 공증인들이 누구나 함께 모이는 공동 교류의 기회로서 이를 개최하는 국가의 공증인협회에서는 전력을 다하여 최대한 성대하게 개최하고 있으며, 통상 3,000명 내지 4,000명의 전 세계 공증인이 참석하는 매우 큰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대한공증인협회에서는 회장인 김진환 변호사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국제공증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무이사인 안원모가 각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공증인이 참석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번 페루 리마 회의는 매우 원거리 에 위치하여 비용과 일정 관계상 2명만 참석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웃 일본공증인연합 회에서는 7명이, 신규 가입한 몽골공증인협회에서는 20명이 참석하였다.

회의가 개최된 페루는 남아메리카의 북부 산악지대와 평야지대에 위치한 국가로서 그 면적은 남한의 11배 정도이지만 인구는 3,000만 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와는 오래 전부터 상당한 경제교류가 있으며 특히 수산물을 다수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페루는 과거 12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남아메리카를 호령하던 잉카제국의 후예로서 잉카제국 당시에는 쿠스코가 수도였고, 스페인 침략 이후에는 쿠스코에서 해안가인 리마로 수도를 이전하였다고 한다.

2. 대의원회

국제공증인협회의 조직은 총회, 지역이사회,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회는 1년에 1회, 대의원회는 1년에 2회,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지역 이사회는 수시로 개최되면서 세계 공증인들 간의 협력과 제도개선,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가입하여 3년마다 이루어지는 국제공증인대회 때에만 참가하고 있으며(매년 참가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 특정한 분과위원회라든가 이사회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다. 분과위원회나 지역 이사회 등에 배치될 경우 수시로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상 시가상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의원(*general counsel, consejo general* ; 일본에서는 이를 상임이사로 번역하고 있음)은 각국의 공증인협회 규모와 국제공증인협회에 대한 재정부담 정도에 따라 각국 공증인협회에 배정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박광빈 국제이사가 맡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안원모 총무이사가 대리로 참석하였다.

통상 대의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여러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 다양한 현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번 대의원회는 2013. 10. 8. 오전에 개최되었다.

대의원회는 국제공증인협회 회장인 프랑스 공증인 장 폴 드코르 (*Jean-Paul DECORPS*)의 개식사, 페루공증인협회장의 인사말을 필두로 시작되어 참석자와 정족

수를 확인한 후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첫 번째 안건은 신규 가입 희망국에 대한 가입 승인의 건이었다. 작년에는 몽골이 가입하였는데 금년에는 베트남, 코소보, 우크라이나 3개 국의 가입 안건이 올라온 것이다. 통상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신청 당해 연도에 가입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국제공증인협회에서 2~3년 동안 당해 국의 공증관련 법제, 실무,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위원회 위원들이 그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정을 확인한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심의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베트남 등 3개 국도 수년 전에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비로소 2013년도에 가입 결의절차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국제위원회(C.C.N.I) 의장인 마이클 멜로티가 각 국가별로 심사결과보고를 하였으며 대의원들의 압도적 다수로 이들 3개 국가 공증인협회의 가입 결의가 승인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라틴계 공증제도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공증제도를 가진 공증인들에 대한 문호개방의 건이었다. 전 세계의 공증제도를 보면 라틴계 공증제도 외에 미국식의 간이한 공증제도, 영국식의 공증인 제도 등이 있으며 압도적 다수는 라틴계 공증제도가 차지하고 있다. 라틴계 공증제도는 법률적 자격을 갖춘 법률가 중에서 인품과 경력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신뢰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공증인으로 임명하고 이들만이 다양한 공증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독일, 일본은 전부 이 계열에 속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공증제도가 라틴계 공증인 제도에 비하여 그 자격이나 권한이 매우 달라, 종래에는 이들 국가의 공증인협회가 국제공증인협회에 가입을 희망하여도 국제공증인협회에서는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여러 나라 공증인들 간의 상호 이해가 커지고, 서로의 제도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처럼 다른 형태의 공증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공증인협회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어 드디어 금년에 공론화된 것이다. 국제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역시 의장인 마이클 멜로티가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요지는 더 이상 각각의 기존 제도만 고집하지 말고 폭을 넓혀 국제공증인협회 조직의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대의원들로서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 동 안건도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증인의 윤리 및 조직 규정을 제정하는 건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소속인 멕시코 공증인 후안 이그나시오 고메즈 빌라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안건이 통과되었다. 각 나라별로 공증인의 윤리 규정이 있고, 공증인 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차이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모델로서의 윤리규정과 조직규정을 제정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네 번째로 2014년도 이후 3년간 국제공증인협회를 이끌어갈 회장단 및 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이 상정되었다. 종래 국제공증인협회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국가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남미 국가 공증인협회의 주도로 이들 중 주요 인사가 사전에 협의를 하여 회장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회장과 집행부가 선출되었는데, 이번에는 국제공증인협회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어 각 공증인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하여 가맹국들의 투표로 선출하자고 새롭게 결정이 되어 이들에 대한 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최종 결정은 총회가 하는 것이므로 대의원회에서는 총회에서 선거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예비투표를 하게 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공증인협회 회장, 부회장, 재무, 운영위원회 위원, 각 대륙별 위원회 및 대륙간 위원회 의장 등 중요 간부 인사들을 다수 선출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입후보하여 이들에 대한 선거투표를 하는데 예상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가장 중요한 보직인 회장 선거에서는 멕시코공증인협회 회장인 알폰소 제르메노 인판트, 세네갈공증인협회장인 다니엘 세다르 생고르, 모로코공증인협회장인 후시딘 세프리우가 출마하였고, 대의원회 선거에서는 멕시코 후보가 60표를 얻어 최다투표자가 되었으며, 이들 3인이 후보자로 결정되어 총회 선거에 회부되었다. 사실 이번 회의에 앞서 이미 멕시코 후보자에 대한 프로필이 국제공증인협회로부터 각 국가의 공증인협회에 여러 번 전송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멕시코 후보자가 당연히 선출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대의원회의 선거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였다. 회의에서의 투표 방법은 사회자가 순서대로 각국을 호명하면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미리 배포된 투표용지를 갖고 나가 투표함에 투함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지역별 부회장, 지역별 이사들에 대한 후보자 추천 선거도 진행되었다.

3. 총회 다음 날인 2013. 10. 8. 오전 9시부터 2013년도 정기총회와 대의원회 연석회의가 시작되어 10. 9. 오후까지 개최되었다.

2013. 10. 8. 오전 9시 페루공증인협회장인 카를로스 엔리케 베카라 팔로미노 회장의 환영사, 국제공증인협회 회장 장 폴 드코르의 개식사가 있었고, 국제공증인협회 회장의 사회 하에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각 국가별 참가자에 대한 확인과 정족수 확인이 있었고, 그 전 날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후에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한 안건 재확인, 2012. 10. 18. 알제리에서 개최된 201년도 총회 결의에 대한 보고, 2013. 5. 13. 러시아의 상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보고(피에르 백끄 공증인이 보고함) 및 총회 의사록 승인, 회장의 경과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제1부는 세미나 시간으로서 “조정, 화해, 중재”라는 주제 하에 신치아 부르넬리 공증인이 발표를 하고, “유럽의 고령화시대와 공증직역에 대한 영향”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볼프강 오토 공증인이 발표를 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가족법, 결혼제도, 상속, 책임, 생전유언, 계약법, 동거권, 동의, 세대를 넘어서는 계약 등의 관점에서 고령화가 공증인의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제2부에서는 먼저 국제공증인협회 소속 각국 공증인들의 자국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각 대륙별 지역위원회(아프리카지역, 북·중미·카리비안지역, 남미지역, 아시아지역, 유럽지역) 및 EU공증인협회의 순서로 해당 지역 회장이 간단하게 그간의 활동상황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협회의 김진환 협회장은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2012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지역위원회 및 2013. 7. 몽골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지역위원회 개최 내용을 유창한 영어로 15분간 또렷하게 발표하여 청중들의 많은 찬사를 받았고 집행부에서도 이례적으로 감사를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회장단의 제도 연구보고가 있었는데 (1) 토지 소유권 이전제도, (2) 공증인간의 네트워킹 및 공증행위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쉘(문양)로서 위조방지공

증문양(secure notarial seal)의 채택 및 시험적 사용 결과, (3)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다음으로는 종전 집행부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관련 위원회의 보고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ONPI, CCNI, CC, CTC, CSSN, CDN, CDH 등의 순서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전날 대의원회에서 발표된 공증인 윤리 및 공증단체 조직 강령에 대한 것이었다. 발표자인 후안 멕시코의 이그나시오 고메즈 빌라 공증인은 윤리위원회(C.D.N)을 대표하여 요약 발표를 하면서 연구 경위,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토의 내용 등을 경과 보고하였고, 약간의 논의 끝에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한편 인권위원회(C.D.H)에서는 2013. 6. 26.에 리마에서 개최된 여성의 권리신장 대회 내용이 영상으로 보고되면서 총회 첫째 날 행사는 종료되었다. 그 날 저녁 8시에는 국제공증인협회장으로서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장 폴 드코르를 위하여 프랑스대사관에서 리셉션이 개최되었고, 여기에는 김진환 협회장이 참석하여 다수 참석자와 환담하였다.

다음 날인 2013. 10. 9. 오전 9시 30분부터 정기총회가 속개되었다. 먼저 제3부에서는 대의원회에서 검토된 “다른 공증제도를 가진 국가의 공증인협회에 대한 문호개방 문제”에 대하여 동 문제 특별연구팀에서 그간의 연구결과 및 논의 내역을 총회에 보고하였다.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회원을 영입하자는 취지에는 반대하는 국가가 없어 이 안건은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제4부에서는 여러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첫째, 신규 가입희망국에 대한 가입결의로서 베트남, 코소보, 우크라이나공화국에 대한 가입승인 결의가 국제위원회(C.C.N.I)의 보고,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에서 토의 내용, 회원국 간의 논의순으로 진행되었고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와 같은 결의가 있을 후 이들 신규 가입국 3개국 및 몽골에 대한 공식 가입행사가 있었는데, 참가한 당해 국의 대표단이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행진, 입장하여 국제공증인협회 회장단에게 이를 수교하고 깃발을 흔드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도 2010년 모로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음 순서로 국제공증인협회의 재무이사가 협회의 재무 상태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

데, 201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논의 및 결의, 2013년도 가예산에 대한 보고, 공증인대학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지원 내역, 2013. 1. 멕시코에서 개최된 토지소유권이전제도에 대한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의 보고, 2014년도 각 국가별 연회비 부담내역, 2014년도 예산안 확정 및 2016년도까지의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차기 집행부 담당기간에 이루어질 국제회의 참가비에 대한 상한(ceiling) 책정 결의 등이 연달아 진행되었다.

이어서 이번 정기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신임 회장 선거가 이루어졌다. 전날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3인의 후보자가 연단에 나와 짧게 입후보연설을 하였고 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멕시코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후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투표가 속행되어 결국 4차례나 투표가 진행된 끝에(여기서의 투표는 각국 회장이 직접 투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일 대의원회와 달리 회장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수고를 하게 되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 넘어 아프리카의 세네갈공증인협회 회장인 생고르가 당선되는 이변을 낳고 말았다.

우리 협회를 비롯한 다수 회원국들은 비록 아프리카 후보가 선전하여도 기존의 유럽,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세력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국제공증인협회 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출신 회장이 탄생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구 집행부도 다소 놀라는 태도였지만, 바로 멕시코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생고르 후보에게 당선을 축하하는 신사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아름답게 선출 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후에도 국제공증인협회 집행부의 여러 직위에 대한 선거가 지루할 정도로 계속 이루어졌고, 다수 인사들이 지역 부회장 등 주요 직책에 당선되었다.

이와 같이 치열한 선거가 끝난 후 3년 후에 개최될 제28회 국제공증인대회는 2016년에 프랑스공증인협회의 주관으로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고, 여러 나라 공증인협회 주관의 각종 국가별 회의 일정, 국제공증인협회 주관의 회의 일정(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총회 등), 캐나다 퀘벡공증인협회 주최로 2013. 11.에 개최될 “부수적 증서의 국제적 통용에 대한 국제회의” 일정이 공표되었다. 금년으로 임기를 다하는 프랑스 공증인 장 폴 드코르의 폐회사로 정기총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다.

그날 저녁 6시부터는 제27회 국제공증인대회 환영행사가 각테일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어 각국에서 온 여러 공증인 및 그 부인들과 페루공증인협회 소속 공증인 다수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김진환 협회장 사모님이 어렵게 갖고 온 화사한 한복으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다.

4. 제27회 국제공증인대회

2013. 10. 10. 오전 9시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제27회 국제공증인대회가 개최되었다. 국제공증인대회는 영어로 Congress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공증인들이 자유롭게 함께 모이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참석자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는 사실 세미나 형태의 회의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제27회 국제공증인대회 역시 정식 회의 전날 저녁에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갖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학술세미나 형태로 진행되었다. 미리 정해진 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동 주제에 대한 각국별 발표, 토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미나가 행해지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는 여러 나라의 공증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자국의 사정을 논의하면서 상호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공증인대회 첫날의 주제는 “새로운 사회 관계 측면에서 본 친족, 상속법에 대한 공증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코디네이터인 프랑스 공증인 파스칼 샤생의 사회 하에 하루 종일 여러 나라 공증인들의 발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의가 주로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발표되어 비록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경청하기에는 쉽지 아니한 회의였다. 우리 공증인들 중에서도 장차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한 분들이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고 발표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

다음 날인 2013. 10. 11.에도 역시 아침 9시 30분부터 제2주제인 “재산거래에서의 법적 확실성 및 이를 규율하는 서면”이라는 주제로 코디네이터인 멕시코 공증인 페르난도 트루에바 부엔필의 사회로 주제발표, 각국별 상황 발표, 토의가 진행되었다.

그 날 저녁 8시부터는 리마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해변에 자리잡은 코스타베르데라는 해물뷔페 레스토랑에서 대규모 갈라 디너 행사가 진행되었다. 많은 국제회의의 경우 회의 종료일 저녁에는 통상 모든 참석자가 부부동반하여 최대한 잘 차려입고 모여서 좋은 음악과 공연을 보고 디너 파티를 하면서 서로 친교를 다지는데, 이는 오랜 서양식 습관에서 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인 2013. 10. 12.에는 국제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민·상사 관계에서의 법적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dejudicialization)”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있었고, 이틀에 걸친 국제공증인대회 세미나 결과에 대한 종합 결의가 이루어졌다.

아무리 세계화된 시대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페루까지 가기 위하여는 대부분 미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미국 경유를 하기 위하여는 12시간 이상의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미국 공항의 엄격하고 긴 입국절차(미국 공항의 입국검사와 짐검사에는 상당한 여유시간과 체력, 인내심을 요하며 악명이 높다)를 거쳐야 하며, 그 후 다시 7시간 내지 8시간의 항공을 거쳐야 비로소 남미의 주요 국가에 이를 수 있다. 페루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 다른 남미 주요 국가들보다는 비교적 근거리 에 있지만 워낙 장거리 여행을 요하고, 특히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이므로 여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체력 단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번 출장을 떠났다가, 부실한 체력의 고갈과 예상보다 심한 고산 증세로 인하여 리마 시내 병원에서 3시간이나 주사를 맞고 퇴원하기도 하였다.

5. 결 어

대한공증인협회가 국제공증인협회에 가입한지 벌써 3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지역위원회의 하나로서 아시아지역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몽골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 지역 공증인 간의 협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공증인의 국제적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른 나라 선진 공증 제도의 견학 및 도입, 공증문서의 국제적 상호 승인, 공증제도의 연구 성과 공유 등인데, 이러한 면을 얻는 혜택 면에서 아직 대한공증인협회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

물러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라틴계 공증인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새로 가입하였고, 태국과 라오스도 라틴계공증제도의 도입과 국제협회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공증인들이 장차 국제적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웃 일본의 경우 국제공증인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매년 7~8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 